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보고회’ 개최

강화군, 군민을 위한 변화! 규제개혁 추진한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보고회

강화군이 지난 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부서 및 읍면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발굴 동기부여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회는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전 조직 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자 마련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강화군의 규제 현안을 분석하고 타지역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회에 앞서 ▲지역 숙원과제 집중 해결 ▲규제혁신 기반 강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 군은 인구감소 지역 특례를 활용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발굴, 공직자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규제발굴·혁신 우수직원 포상제도 신설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며, “전 부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5월 13일부터 27일 신청...학기별 최대 100만 원 지원

강화군, 대학생 상반기 등록금 신청하세요!

강화군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소득 분위 1~8구간의 2024년 1월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강화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실질 납부액에 대해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학기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27일까지이며, 강화군청 자치교육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자치교육과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2024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강화군의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문의 ▶ 강화군 자치교육과
☎ 032) 930-3329

윤도영 권한대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간담회 진행



강화군청 전경

이날 간담회에는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철조 청장을 비롯해 강화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어항(어유정항) 종합 정비 사업 설계용역 추진 시 강화군 의견 반영 ▲신설 확장된 어장에 대한 조건부 이행을 위한 접경 해역 조업 어선 안전(경계) 부표 설치 시 시설항로표지 설치 허가 신속 협조 ▲여객선(강화페리오) 대체 건조 시 증톤 건의, 관공선 계류장 완료 시 까지 국고여객선 계류시설 사용 협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신속 처리 협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강화군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공익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해양수산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화군, 가로수 위험성 진단 사업 실시 주요 도로변 빗나무 1,401주 대상 / 수목별 맞춤 처방 진행



강화군, 가로수 위험성 진단 실시



우기 대비 급경사지 33개소 안전 점검 돌입



우기 대비 급경사지 33개소 안전 점검 돌입

강화군이 강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가로수 도복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로수 위험성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로(유다리~찬우물삼거리), 해안동로(오두둔대~광성보) 등 가로수 10개 노선의 빗나무 1,401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로수 위험성 진단은 ▲사전검토(조사) ▲기초현황조사 ▲정밀진단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군은 지난 4월까지 사전검토(조사)와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178주에 대해서는 전기 저항 드릴 등 최첨단 기기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정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위험 가로수 202주에 대해서는 제거하거나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등 증상별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수목별 맞춤 처방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며,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가로수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독사 위험군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 강화군, 고독사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강화 만든다!

강화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4년도 강화군 고독사 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의 중장년 1인 가구는 5,070명(남성 2,946명, 여성 2,124명)으로, 군은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024년에는 통계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더 큰 남성을 중심으로, 2025년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까지 읍·면별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단을 구성해 복지

담당자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실태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도 진행한다.

전수조사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는 필요한 공적 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를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플러그 ▲AI 안부 확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 서비스 제공 등도 시행 예정이다.

- 최벽하 기자

5월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2회 강화군, 국가유산 전등사 대웅전 수리현장 특별공개



강화군, 국가유산 전등사 대웅전 수리과정 특별 공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가 기둥 위쪽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군은 5월 16일~30일 매일 오전 10시~11시와 오후 2시~3시, 하루 2회씩 복원과 수리 현장을 공개한다.

현장을 방문하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로부터 수리 과정 및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람 신청은 강화군 문화재과에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한 회당 관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군은 내년에 보물 179호 '전등사 약사전'의 수리 현장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전통 구조와 수리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마련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강화군이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성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유산인 보물 78호 '전등사 대웅전'의 수리 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전등사 대웅전은 전면 3칸과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관람신청 ▶ 강화군 문화재과 ☎ 032) 930-3897

강화군, 신정체육시설 황톳길 개장식 개최



신정체육공원



황톳길 개장식

강화군이 10일 선원면 신정체육시설에서 황톳길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체육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150여 명의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며, '힐링 맨발걷기 체험'을 함께 진행했다.

황톳길은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 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신정체육시설 체육공원을 활용해 총 길이 356m, 폭 2m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전천후 시설로 날씨와 계절에 영향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황톳길을 통해 주민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체육시설 황톳길은 지난달 2일 개장해 이달 9일까지 4,500여 명의 주민이 다녀가며, 건강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최백하 기자



“힐링 맨발걷기 체험”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경 강화군, 문화재과 ‘국가유산과’로 부서명 변경



강화 고인돌

강화군이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과’의 명칭을 ‘국가유산과’로 개편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20여 개의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화군은 2024년 5월 17일자로 ‘문화재과’의 명칭을 ‘국가유산과’로 개편하고 ▲ 국가유산정책팀 ▲ 국가유산보호팀 ▲ 국가유산

관리팀 ▲ 박물관팀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유형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국가유산과로 명칭을 개편하는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문화유산의 기본 이념을 실행하는 첫걸음이다”며, “강화군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과 부서명 변경(강화 고인돌)



문화재과 부서명 변경(강화산성 남장대)

강화군 법률홈닥터 서비스 10년째 운영

변호사가 직접 무료 법률상담 진행...지난 12월 기준 상담 건수 500여 건



강화군 법률홈닥터 서비스

강화군이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법률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군청 인근 독립된 사무실에 상주하며 법률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수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이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 건수는 500여 건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관련 상담 및 문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모든 군민이 자신의 정당한 법률상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문의 및 사전예약 ▶ ☎ 032) 932-7179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강화군, 한없이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강화군이 9일,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강화문예회관에서 어르신 800여 명과 주요 내빈을 모시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석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로효친 사상 선양에 기여한 효행자 13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모범을 보인 장한 아버지 2명, 효 문화 실천을 통해 모범이 된 단체 1개소에 대해 표창하였다.

또한, 강화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회원들의 난타와 라인댄스 공연, 퓨전국악, 초청 가수 박현빈과 김 양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져 어르신들께 즐

거움도 선사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오늘이 있기까지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강화군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강화군,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강화군은 지난 11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강화문예회관에서 「제102회 강화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당초 5월 5일 어린이날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천과 돌풍 예보로 인해 11일 강화문예회관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모범어린이 표창, 풍등 퍼포먼스 등 기념식을 시작으로 마술쇼, 매직사이언스, 동화콘서트,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무대행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드론VR체험, 캐리커처, 비즈공예, 천연염색, 베틀체험, 요요만들기 등 각종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고, 빼어난 풍선은 아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긴 줄이 이어졌다. 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샌드

아트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회 만석을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다.

군 관계자는 “우천으로 날짜와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강화군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자매도시 중국 주산시와 청소년 교류 예정 강화군, 제4기 강화 주니어 외교관 발대식 개최

강화군이 지난 9일, 군청에서 제4기 강화 주니어 외교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4기를 맞는 강화 주니어 외교관은 관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커뮤니티로, 매 기수마다 20명씩 선 발해 왔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외교관증 전달, 활동 다짐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이어졌다.

이번 기수로 선발된 주니어 외교관은 내년 1월 초까지 지역 문화 소양강의, 국제교류 관련 기관 방문,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참가 등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작년 가을 자매도시로 격상한 중국 주산시와 청소년 교류를 재개해 학생들이 5년 만에 다시 우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니어 외교관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강화군도 주니어 외교관이 강화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니어외교관 발대식

강화의 보물섬 석모도 수목원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힐링하세요!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체험 영어교실 상시 운영



숲체험 영어교실



숲체험 영어교실

강화군이 지난 2일, 석모도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숲체험 영어교실을 개강했다.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석모도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은 학생들이 영어를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만끽하고 어울리며 숲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강화의 보물섬으로 불리는 석모도 수목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석모도 수목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전문 숲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평소 도심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산림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숲과 더욱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석모도 수목원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체험 영어교실은 주중(월~금) 오전 및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중이다.

- 최백하 기자

참여 신청 및 문의 ▶ 석모도 수목원 ☎ 032) 932-5432

하점면 7개소 경로당, 경로잔치 통해 화합의 장 마련



경로당 경로잔치 통해 화합의 장

강화군 하점면(면장 박인상) 내 7개소 경로당에서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하점면 장정1리와 부근2리 등의 마을에서 경로당과 음식점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마련하고 푸짐한 식사와 선물을 대접했다.

특히, 부근2리(목숙) 경로당에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으며, 음향 장비를 준비해 흥겨운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어르신들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임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 부근2리(목숙) 경로당 남궁양 노인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매년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은면, 모내기철 맞아 농민 격려 및 현장 영농행정 실시



모내기철 현장 영농행정 실시

강화군 불은면(면장 염명희)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관내 영농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

모내기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영농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전파했다.

농민들은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해 주니 작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한 번에 해소된다”면서 불은면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농업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노력해 주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길상면,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강화군 길상면(면장 김재구)이 오는 7일부터 길상면에 거주하는 1인 남성 단독가구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2024년 강화군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면 고독사 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찾아나설 방침이다.

조사는 고독사 실태조사표를 통해 기본실태와 사회적 고립도, 가구 취약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후 고위험 가구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AI 전화안부 서비스 및 돌봄 플러그(전력, 조도 감지), 맞춤형 급여, 사례관리 등 공적 지원, 민간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앞으로도 위기 발생 위험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5월 가정의 달 맞아 관내 재학중인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학금 지원 사업 첫 시행



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학금 지원 사업 첫 시행

강화군 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윤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교육비를 경감하고 미래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30일 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삼산 초등학교와 해명 초등학교, 승영중학교를 방문해 총 1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첫 장학금 사업을 진행한 김윤태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면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비 경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삼산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은희 삼산면장은 “언제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 덕분에 모두가 살기 좋은 삼산면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위원님들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년째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진행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길사모), 사랑의 반찬 동행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길사모) 사랑의 반찬 동행

강화군 길상면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회장 김흥식)이 지난 7일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한 100번째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회원 30명이 참여해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소고기무국과 잡채, 동그랑땡 등 반찬을 전달했으며, 길상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전등사(주지 여암)에서도 지역민들과 함께하고자 떡을 후원해 훈훈함을 더했다.

길사모는 2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다.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김흥식 길사모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길사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구 길상면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군 특화 사업으로 전액 지원...12가정 40명 선발 강화군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가족 제주 나들이 큰 호응



강화군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가족 제주 나들이 큰 호응

강화군 가족센터(센터장 박우석)는 지난 29일~1일,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정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이민자 가족 제주 나들이 행사는 강화군에서 전액(2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군 특화 사업으로, 강화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정 부모와 함께 국내 유적지 및 문화를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12가정 40명이 선발됐으며, 어린이 13명도 포함됐다. 출신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 태국 등 대다수 아시아지역 결혼 이주 가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 일출랜드, 에코랜드, 승마 체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우석 센터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참가자들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센터에서도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강화군 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 032) 932-1005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 개방

5월 16일부터 ‘강화전쟁박물관 ~ 대룡시장’ 안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시는 5월 16일(목)부터 11월 30일(토)까지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7회 운영, 726명이 참여했다.

강화 테마노선은 강화전쟁박물관 → 6.25 참전용사기념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철책선 도보길 → 불장둔대 → 대룡시장 → 화개정원을 둘러보는 코스다.

철책선 도보길 약 1.5km를 포함해 총 62.5km로 약

5~6시간 소요되며, 이동 중에는 해설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뜻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화)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참가비 1만 원은 지역 특산품으로 돌려준다.

강화도는 국난극복의 피난처에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시작점으로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피난(안식)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온 곳이다. 북한과 마주한 강화의 북쪽 해안에는 옛 군사시설인 둔대가 아직도 국방과 평화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번 강화 테마노선에 포함돼 있는 의두분초에서 시작하는 해안 철책선 도보길을 따라 걷고, 실향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룡시장에서 레트로 감성의 시간여행도 즐겨볼 수 있다.

또한, 테마노선 코스 외에도 볼 것들이 다양하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미정, 대몽항정을 위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던 모습을 담은 고려천도공원 등을 볼 수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DMZ 특색이 반영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 운영으로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침체된 강화도 접경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웰니스관광지 25개소 육성으로 ‘글로벌 웰메디(Well-Medi) 도시, 인천’으로

인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웰니스관광지 5곳 신규 선정

인천 웰니스 관광지 신규 5개소

‘인천’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왼쪽부터 △ 더위크앤 리조트, △ 스티라요가, △ 차덕분, △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 (예비) 희와래커피로스터스

(상단)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 (하단) 금풍양조장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2024년도 인천 웰니스관광지 5개소(예비 1개소 포함)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웰니스관광지는 2021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선정 및 육성하며, 5개 테마(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해양치유, 헬스케어, 웰빙푸드)로 올해 선정된 5개소를 포함해 총 25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 선정된 웰니스관광지는 △더위크앤리조트 △스티라요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차덕분 이며, 예비 웰니스관광지는 △희와래 커피로스터스다.

△더위크앤리조트는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휴식과 활동이 조화로운 리조트로 반려동물 동반 객실부터 파노라마 오션뷰 객실까지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선셋요가, 어린이 숲 체험 등 자연을 활용한 웰니스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스티라요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요가명상원으로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영어로 진행되는 실내 요가, 마음챙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영종도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리조트로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 체험형 공원 ‘디스커버리 파크’, ‘디지털 아트’ 등을 활용한 웰니스 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영종도 구읍벤티어에 위치한 △차덕분은 바다 전망이 보이는 차 카페로 한국 고유의 차와 전통 다과를 제공하며, 다실 ‘무언’에서 진행되는 차모닝(10시)을 사전예약으로 다양한 외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희와래 커피로스터스는 강화도에 위치한 비건 카페로 식물성 재료와 강화도에서 재배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디저트를 제공하고 ‘비건 베이킹 및 요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웰니스관광지 25개소(신규 4개소, 예비 1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관광지 맞춤형 전문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지원, 주변 자원과 연계한 체류상품인 <인천 치유스테이>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웰니스관광스테이 저변 확대를 위해 웰컴 키트를 구성해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4년 신규 우수 웰니스관광지로 인천의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과 ‘금풍양조장’ 2곳이 선정돼, 인천은 총 6곳의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힐링, 치유의 경험을 널리 제공하고자 지역 특색을 살린 웰니스 체험과 의료관광을 접목한 상품 개발·운영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힐링도시, 웰-메디 인천으로 나아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기고

이경수

성종의 세자 교육을 살펴보며



회묘(연산군 생모 폐비윤씨의 묘, 경기 고양)

성종의 선택은?

“세자가 어린데도 날마다 서연에 나와 뽀뽀한 공부 일정 따라가느라 지친 것 같습니다. 적절히 여가를 주어서 몸과 마음을 휴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공식적인 공부를 경연(經筵)이라고 하고, 세자의 공부를 서연(書筵)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자 나이 겨우 8살입니다. 서연 일정이 너무 뽀뽀합니다. 김수광이라는 신하가 성종에게 세자를 적절히 쉬게 해주자고 청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신하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김종직이 대답합니다. “공부를 잠시라도 그치게 되면 태만함에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신은 김수광의 생각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맛을 들이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니 쉬 없이 시켜서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김수광은 김종직의 말을 “국가의 중보(重寶, 세자)를 소중히 여기는 바가 아닙니다.”라며 반박합니다.

저는 김수광의 말에 공감합니다.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의 아이를, 수험생 다루듯 마구 몰아친 모양입니다. 숨 쉴 틈을 줘야죠. 아무리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무한정 먹일 수는 없습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배고플 시간을 줘야 음식의 맛을 알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성종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들어봅시다.

“김종직의 말이 옳다!”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한다는 김종직의 의견대로 세자는 강요된 공부로 끌려 들어갑니다. 소학을 시작으로, 논어, 맹자, 시경, 상서, 춘추... 성종은 책 한 권 펴 때마다 세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서연관들에게 상을 내리고, 또 서연관의 수를 늘리면서 세자의

학업을 독려했습니다.

성종은 수시로 ‘진도’를 확인했고 교재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서연관들에게 이르기도 했습니다. 서연관 처지에서 볼 때 성종은 꽤 까다롭고 피곤한 ‘학부모’였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이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 짐작에는 서연관들이 세자의 소화력을 고려하지 않고, 성종에게 보이기 위한 ‘진도 빼기’에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몇 권 읽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 권 읽었다, 스무 권 읽었다!” 자기만족일 뿐이에요.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소화하는 게 중요한 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못 푸는 거니?”

세자의 학문 성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읽어낸 책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뿐 학문을 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물심양면, 자식 교육에 정성을 다한 성종! 그럼에도 세자의 학문 진척이 더딥니다. 그래서 세자로서 해야만 할 일상의 일들을 줄여주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게 합니다.

세자는 죽을 맛입니다. 공부가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억지로 억지로 따라갑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즐겨워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세자는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나이만 먹어갑니다.

“세자가 지금 17살인데 아직도 문리(文理)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심히 이를 근심하고 있다.”

성종이 걱정합니다. 신하들도 세자의 학문 수준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낸 신하가 있었습니다.

서연에서 《대학집주》를 가르칠 때입니다. 세자를 가르치는 성현이라는 신하가 성종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이라 세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포기합시다! 성종의 대답은, “가(可)하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습니다. 성종은 세자 공부를 계속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랬는데, 1494년(성종 25), 세자 나이 19세 때 사헌부 장령 유빈이 아뢰입니다.

“신이 서연에서 옆드려 세자께서 글 읽으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읽는 소리가 머뭇머뭇 자꾸 더듬는 것으로 보아 다 통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 들으실 때도 질문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세자의 나이쯤 되면 평범한 사람도 글을 통하고 이치를 알게 되는데, 세자는 그러하지 못하니, 이는 학문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성종이 대답합니다. “장령의 말이 진실로 옳다.” 슬픈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십여 년, 자식 교육에 온 힘을 쏟았는데... 도대체 문제가 무얼까? 성종은 자문했을 것입니다. 성종은 세종, 정조와 함께 학문 높았던 군주로 평가됩니다. 공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재밌어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했고 성취를 이뤘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대학 레벨을 상·중·하, 셋으로 나눈다고 치죠. 세자는 겨우 하급 대학 수준입니다. 아버지 성종은 자기가 상급 대학 나왔으니 아들도 그



성종왕릉 선릉(서울 강남구)

래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무작정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원도 보내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좋다는 건 다합니다. 그게 아버 된 자의 도리라고 여깁니다. 덕분에 아들이 중급 대학에 갈 실력이 되었습니다. 유의미한 성취이지만, 아버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기껏 성취를 이루고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했다가 핀잔만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상급 대학 나온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때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부모가 자녀 교육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의 관심 분야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못 푸는 거니?” 화만 내기 십상입니다. 성종의 세자 교육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성종 못지않게 세자 교육에 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태종은 서연관들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세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세자는 서연에 결석하며 반항합니다. 태종은 내시들도 뒤통수했습니다. 세자가 서연에 가지 않자, 내시 김문후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간청합니다. “세자 저하, 제발 서연에 가십시오. 아니 가시면 저희가 벌을 받습니다.” 그날 세자는 서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세자 대신 세자의 내시 노분을 곤



김홍도 서당도의 모사품(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장 치게 했습니다. 세자가 반성하고 자극받고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조치였지만, 세자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만 키웠습니다. 참 치사한 교육 방법입니다. 매 맞은 내시도 보통이 아니더군요. 세자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저하께서 공부 안 하는 것이 어찌 소인의 죄입니까?”

결국, 태종의 세자 교육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태종의 세자는 양녕대군, 성종의 세자는 연산군입니다.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되었습니다. 동생 충녕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되었다가 즉위하니, 세종입니다. 연산군은 무사히 즉위했으나 폐위되고 맙니다. 연산군의 동생이 즉위하니, 중종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뜻대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엄연히 나와 다른 인격체입니다. 지금 독자 중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당신의 교육을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개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대학입시에 둡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시키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업 성적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성 교육입니다. 사람 교육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꾸지람 듣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기의 이익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알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사람 교육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직장에서의 행복과 성공은 대학순, 성적순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인간미를 갖춰야 인정받게 되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교육이 중요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다 사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나약해집니다. 자립심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직장일이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그만두고, 조금만 기분 상해도 더럽다며 때려치우고, 사업해보겠다고

부모에게 손 벌리면서, 씹씹이는 헤프기만 한 철없는 어른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모에게 의지해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칼럼(동아일보, 오명철, 2008.1.10.)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집을 넓혀 달라는 40대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로 아파트 평수를 줄인 부모가 있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마다 더 먼 변두리로 이사 간 부부도 있다. 자식의 빛 때문에 늘그막에 단칸 전세방을 전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연금마저 차압당한 이도 있다. 뼈 빠지게 교육시키고 직장까지 얻게 해 결혼까지 시켜 주었지만 철딱서니 없는 자식들은 끝까지 부모의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한다. 자녀들이 태어나 부모에게 준 기쁨은 잠시뿐, 그 대가는 길고 혹독하다. ...

‘애프터서비스’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묘사한 감이 없지 않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구, 너무 심각해졌네요. 분위기 바꾸겠습니다. ‘똑똑한’ 아들에게 낭패를 본 어느 딱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문화적 혼혈인간》이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브로엄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대요. 대법관까지 지낸 명망가였습니다. 장남을 프랑스 파리로 유학 보냈는데, 아, 이 친구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배우와 연애질만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브로엄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라. 안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겠다.”

이제 아들은 연애를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유학을 중단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의 답장을 받고 아버지 브로엄은 지금껏 송금하던 액수의 두 배를 보내줬습니다. 아들의 반성 편지가 그를 감동하게 했던 걸까요? 아들의 답장은 이러했습니다. “송금액을 즉시 두 배로 인상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그녀와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기고 석모도 출신 고우석이며,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라



이 두

연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혹시 고우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올해 26세인 한국 청년으로 세계적 실력을 갖춘 야구선수들이 모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입단한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지난해까지 LG트윈스에서 주전 투수로 활약했으며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 대표로 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미국 프로야구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스카웃 되었으며 제2의 류현진이나 박찬호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애미 말린스로 팀을 옮겨 현재 메이저리그 아래인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고우석은 지난 3월 서울 고척돔에서 벌어진 한미 친선시범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실력 발휘를 못해 정작 미국 프로야구 개막 전에는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당당히 실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았으나 아쉽게도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좋은 활약을 펼쳐 내년에는 반드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고우석 선수가 바로 강화군 석모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우석은 1998

년 석모도에 태어나 어린 시절 인천 서림초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해 본격 야구를 시작, 오늘에 이른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야구를 하게 된 계기는 고종사촌형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종사촌형인 유재유는 고우석처럼 LG트윈스에서 활약한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2018년 시즌을 앞두고 FA 김현수의 보상 선수로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고 어깨 부상으로 별 활약을 못하다 2022년 7월에 임의해지 형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습니다. 고우석은 이러한 사촌형의 유니폼이 멋있어 보여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천중과 충암고를 졸업한 뒤 2017년 LG트윈스에 1차 지명됐으며 지난해까지 LG트윈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올해 역시 미국으로 진출한 이정후 선수와 매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절친인 이정후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바람의 아들로 알려진 이종범의 사위가 된 것이죠. 뛰어난 실력을 갖춘 두 선수가 한꺼번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연일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이 낳은 현재 최고의 야구 스타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꼽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다 올해 한국 한화 이글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은 인천 창영초 출신으로 동산중고를 졸업한뒤 한화에 입단해 국보급 투수로 활동하다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다. 류현수의 귀국 후 활약으로 한화는 일약 5강에 손꼽히며 다른 팀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3년 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8년 170억원이라는 KBO 리그 역대 최고 계약을 맺으며 한화 이글스로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12년만에 국내 리그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2031 시즌까지 한화 이글스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해 통산 프로야구 100승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으로 올해 프로야구에 입문해 관심을 받는 또 한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오비 베어스에서 뛰고있는 투수 김택연입니다. 인천고에서 펠 당시 최고 153km 목직한 직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타고교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투구 속도와 동작이 마치 고우석을 연상시킨다고 해 ‘고교야구의 고우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택연은 동막초·상인천중·인천고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입니다. 프로에서도 실력을 나뉠 발휘해 벌써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고우석 선수가 류현진이나 박찬호 선수처럼 세계적인 유명선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직 26세의 창창한 나이이니 미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강화 석모도의 아들’임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장래가 촉망한 인천 출신 고우석과 김택연에게 강화군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강화 Wee센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진치료 프로그램 ‘빅 픽처(Big Pick+er)’ 실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Wee센터는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진치료 프로그램을 관내 신청교 학생 대상으로 진행한다. ‘빅 픽처(Big Pick+er)’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진(Picture)과 동일한 발음의 픽처(Pick+er), ‘Pick’(고르다, 선택하다)+‘er’(사람)의 합성어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능동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명이다.

프로그램은 한 회기에 2시간으로 운영되며, 한 학급 혹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이 총 2회기에 참여한다. 1회기에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며, 동물사진 찾기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친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회기에는 적절한 감정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워보며, 인생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골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방어 및 저항을 낮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탐색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학급 단위 또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긍정적 소통을 경험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또래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대화할 수 있을지 알게 되었다.”, “친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친해지게 되었다”, “사진

을 가지고 나를 찾아본 것이 좋았다.”,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들의 성향을 알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강화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연계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내가면 황청리 멘토의힘 대안교육센터 지도교수 유담

서울 교보문고 본사의 건물에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문구가 커다랗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 다른이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의 보물창고이며,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영감을 받거나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은 사람들을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게 해줍니다. 문화와 역사, 인류의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됨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방향, 방법들을 찾아내 자기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끊임없이 향상 시키기에 책은 사람을 다듬고 성장시켜가는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며 책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 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학교 졸업의 학력,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

필자의 경력 중에 현대그룹창업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분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 제목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그분의 자서전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일이었기에 남들보다 자세히 읽고 독서기록장을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915년에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가난한 소작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0살 때 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워서 농토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아버님과 어머니의 부지런하심은 나의 일생에 가장 은혜로운 교훈이었고, 오늘 의 나를 있게 한 첫째가는 유산이다."라며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난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몸부림으로 어린나이에 4번의 가출을 시도합니다. 송전소학교 졸업.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며 어린 나이였던 그가 가출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은 함경북도 원산 근처의 탄광촌에서 철도공사장의 막노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출은 금강산이었으나 일도 못 구하고 사기만 당했고 세 번째 가출 때는 소 판돈 70원을 훔쳐서 서울로 갔고 네 번째 가출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소학교 친구 오인보와 같이 가출했으나 결국 아버지의 손에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가출해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쌀가게 복흥상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새벽형 생활습관에 따라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쌀과 잡곡을 가득 담은 가마니를 가지런히 정돈했는데 급히 배달 나갈 때 쌀, 보리, 잡곡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복흥상회에는 여섯 명의 쌀 배달꾼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쌀가게가 문을 닫고 나면 배달꾼들은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들과 어울리기보다 책을 읽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즉 동료들과 놀지 않고 독서로 자기 계발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쌀가게 주인은 눈 여겨 보았습니다. 정작 주인 외아들은 노름에 빠져 있었기에 외아들에게 실망한 쌀가게 주인은 성실하게 일하며 책을 읽는 정주영에게 가게를 팔고자 마음먹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복흥상회 주인의 딸인 이문순 여사가 정주영 회장에 대한 회고에 “다른 일꾼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밤이 되면 항상 책을 붙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순 여사의 어머니 또한 청년 정주영의 성실성과 독서열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주영이 어떻게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저 그의 학력으로만 짐작했다면 아마도 그가 책을 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주영의 경영정신>이란 책의 저자 홍하상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지나 <십팔사략(十八史略)>까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학원 졸업생 정도의 학문적 소양을 이미 갖추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주영 회장은 남들에게 띄지 않게 문학인들을 극진히 예우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식사 접대를 받은 문학인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독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초등학교 졸업자 정주영, 그는 독서의 힘을 통해 기발한 창의력과 추진력, 지혜를 한껏 발휘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를 일으키는데 커다란 획을 그은 이가 바로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하루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일을 해보면 교육과 상관없이 질적인 면에서나 능률면에서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그 하루가 모아서서 일생이 되는 하루하루를 중요한 줄 모르고 살면 그 일생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삶이 아니겠는가. 충실한 삶을 살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바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읍시다. 만일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거나 큰 꿈을 갖는 이들이 되게 하고 싶다면 자녀들과 함께 책읽기를 시작하세요. ‘강화의 다음세대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의 책 읽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인천강화경찰서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소방 공동대응 간담회 개최



소방간담회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8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소방 공동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목표는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

체제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공동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공동대응 시 잘된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치매어르신 등 미귀

자가 수색 협조, 대형 재난 사건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현장 출입 통제 및 인근 교통 관리 협조 등 주민이 더욱 안전한 처안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 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이 불필요한 경우 공동대응 요청을 해제하여 경찰·소방 출동 인력 낭비 최소화 하고, 주취자 관련 112신고 출동 시 전문적 의료 지식을 갖춘 119구급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등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조장래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상호 조직에 대한 소통이 적어 현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이 자리를 통해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강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정진 기자

사랑의 마음을 기부해요



화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



삼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들 가슴에 사랑의 꽃을



송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건강하세쵸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들과 영화관람 나들이



화도면 새마을부녀회 시원한 얼굴이 김치 드시고 힘내세요



삼산면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나눔



길상면 새마을부녀회, 어버이날 감사 나눔 행사



강화읍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물품 기탁



하점면 새마을부녀회, 달걀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전 점검의 날 맞아 「어린이 안전 정책 홍보캠페인」 실시 강화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어요!

강화군이 지난 7일, 제334차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강화군 행복센터 내 강화 행복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 정책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강화군 안전총괄과와 사회복지과, 강화군 복지재단, 강화군 행복센터 직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시설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 등에 대해 홍보했다.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강화군 키즈카페를 찾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표를 배부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집중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안내하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 정책 홍보캠페인

강화군, 임신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난소·정자 건강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절차 01 검사비 지원 신청 강화군보건소 방문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0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03 검사 및 결과 상담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시범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04 검사비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강화군보건소 방문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지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항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문의사항 (양문신청)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온라인 공문) 문서 24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문의할 곳 전화 930.4068

강화군이 관내 주소지의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검사는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 내 참여 의료기관은 비에스종합병원이다.

검사 희망자는 검사 전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상반기 개설 예정으로 개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문서24를 통해 신청)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3개월 내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임력 검사 지원을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 서정진 기자



4.19기념식

강화4.19혁명 기념식

1960년 4.19혁명 당시 강화중·고등학교와 강화여자상업고등학교와 여자중 등 4학교 학생 1,000여명이 강화읍에서 3.15부정선거 규탄 가두시위를 한 64주년 기념식을 지난 4,19일 강화읍 용흥궁 공원에서 한상운회장과 장기천 강화군 노인장과 황완익 문화원장등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하였다.



CAFE BERRY

very good

커피·프라페·스무디·빙수·마카롱·스콘·케이크·샌드위치



카페 베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4-5 Tel.010.4781.0518
영업시간 11:00~19:00 화·수요일 휴무 #강화카페 #루프탑카페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